

신경외과
Neurosurgery

수족저림증

EMC 을지대학교의료원

수족저림증이란?

진료 및 치료 시기

누구나 한번은 팔다리가 저린 증상을 경험합니다. 잠을 잘 때 다리를 꼬거나 팔을 베고 누우면 팔다리의 특정 부위가 신경이 눌려 저림증으로 잠에서 깨곤 하지만 아주 깊은 잠에서 깨지 못하면 아침에 팔다리의 마비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말초신경 압박에 의한 저림증이나 이와 동반된 마비 증상은 3~4주가 지나면 차츰 나아지며 12주 이내에 대부분 호전됩니다.하지만 저림 증상이 지속된다면 신경근전도 검사를 하여 신경 손상의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조기 등의 흰 살 생선, 꽁치, 고등어, 정어리 등의 등 푸른 생선, 삶은 콩, 두부 등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과 치료법

팔다리 저림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만큼 원인을 제대로 구분하고 특정한 신경을 결정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확진을 하는지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조기 치료를 받지 않고 말기 신경 손상이 된 상태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족저림증이 있는 경우 무턱대고 약물이나 침 치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병리 현상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전문적인 치료를 조기에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족저림증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

갑상선기능항진증이나 저하증, 신부전증 등 혈액 내 전해질 이상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팔다리 저림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맥이나 빈맥, 서맥 등 심박수 변화, 떨림, 초조함 등과 같은 심리적·감정적 변화, 팔다리 전체적인 근력의 저하를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는 원인이 되는 질환을 정확히 찾아서 병리 현상을 고쳐주면 증상은 나아집니다.

뇌 또는 척수신경과 같은 중추신경에 뇌경색이나 척수염, 종양 등이 있는 경우에도 팔다리에 저림증을 동반한 운동 감각마비 증상을 호소합니다. 대부분 일측성으로 오거나 특정 피부 영역 이하로 오며 언어 장애, 시야 장애, 뇌신경 마비 증상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뇌 또는 척추 MRI로 확진하고 원인에 부합된 치료를 시행합니다.

목 디스크나 경추관 협착증,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과 같이 척수나 척수 신경근의 압박을 유발하는 질환은 상지의 저림증이나 통증을 일으키며 상지의 근력저하나 특정 감각 영역의 감각 마비를 동반합니다. 신경학적인 검사로 특정 신경을 특정하고 MRI 또는 신경근전도 검사로 확진합니다. 신경의 손상 정도에 따라 수술 또는 비수술적 치료로 구분하여 치료를 진행합니다.



수족저림증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

허리 디스크, 요추관 협착증, 요추 신경관 협착증, 척추 전방전위증 등 요추 신경근을 압박하여 다리 저림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하지 방사통, 보행 장애, 방광 및 직장의 괄약근 마비 등과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대부분 요통과 연관된 경우가 많으며 체위의 변경이나 보행 시 악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경학적인 검사로 특정 신경을 특정하고 MRI 또는 신경근전도 검사로 확진합니다. 신경 손상의 정도에 따라 치료방식을 결정합니다.

고도의 동맥 경화증이나 하지 정맥류 등 하지의 혈류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 역시 저림증을 발생시킵니다. 다만 저림증이 움직일 때 하지의 말초부로부터 근위부로 이행하는 패턴을 보이며 혈류량을 개선해 주는 처방으로 많은 호전을 보입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서 상하지 원위부에 저림증이나 감각 무딤증 이상 감각증을 보입니다. 특정한 피부 감각 영역에 저림증을 호소하며 신경근전도 검사에서도 상하지 대부분의 신경에 모두 이상 소견을 보입니다.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혈당 조절이 필수적이며 저림증을 완화하는 처방이 이뤄집니다.



손저림 대표질환

손저림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손목터널증후군이 있습니다. 주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잘 나타나며, 손목을 관통하는 정중신경의 압박이나 유착에 의해 발생합니다. 밤이나 새벽에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리며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부은 듯하여 주먹 쥐기가 힘듭니다.

심한 경우 수저질이나 글쓰기가 어려워집니다. 경추부 신경근 손상이나 말초 신경염과 구분이 필요하고 신경근전도 검사로 확진합니다. 경도나 중등도의 신경 손상에서는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며 호전되지만 고도의 신경 손상으로 근육 손실이 있는 경우는 수술을 통해 신경과 손의 기능을 보존해야 합니다.



www.emc.ac.kr

통합
콜센터

1899-0001

의정부	평일 08:00~17:00	토요일 08:00~12:00
대전/노원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
강남	평일 08:30~17:30	

환자가 필요로 하는 곳엔 '을지'가 있습니다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강남을지대학교병원